



▲이사회에서는 張泰玩 한국증권전산 사장이 이사로 선임되었다.



▶ 19일 개최된 법제위원회 광경

제6회 이사회, 89년 사업계획 검토

제6회 이사회가 구립 21일 하얏트 호텔 2층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작년 협회가 수행한

사업보고와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또한 대우증권(주), 한국전자계산(주)가 신규 회원사로 입회가 가결되었으며, 한국증권전산(주)의 張泰玩사장이 이사로 선임되었다.

한편 이사회 후에는 오찬이 있었다.

법제위원회 개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마련한 정보교환 회선의 세부기술기준(안)을 검토키 위해 법제위원회가 구립 19일 협회사무국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 대표들은 정보교환 회선을 KTA와 DACOM이 독점하고 있으므로 민간사업자가 과연 동기준(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만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표했다.

뿐만 아니라 2000년대 고도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해 CSDN, PSDN, PSTN의 각 공중망이 통합돼 ISDN으로 나가야 하는 당위성에 비추어 불 때 본 기준의 제정은 일정기간 밖에 적용될 수 없으리라 전망했다.

조사연구위원회 개최

조사연구위원회가 구립 1일 협회 회의실에서 있었다.

전산망 사업 기술관련 조사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한 조사연구위원회의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에 실시되었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실태조사·정보통신 역무제공업자 실태조사 등의 조사업무 및 '88년도 전산망기술 동향·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및 등록 실무해설 발행 등의 연구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 졌다.

한편, 올해에 실시될 조사연구 업무의 내용검토 및 보완도 함께 논의되었다. ♣